

사회통합 실태 및 인식의 변화와 결정 요인 그리고 정책 함의¹⁾



Current Status, Perception,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ohesion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통합 일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회통합 수준,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은 2017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후 매년 조금씩 하락하였다. 다섯 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은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19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상에 대한 인식을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로 구분해 살펴볼 경우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9년 모두 사회이동성 관련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꼽힌 가운데, 분배와 관련되는 조건보다 성장(풍요)과 관련되는 조건이,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되는 조건이 더욱 중시되는 쪽으로 변화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사회통합 인식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를 회귀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이,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 들어가며

2019년 대한민국의 사회통합과 관련되는 가장 큰 이슈는 ‘공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공정성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거쳤고 갈등을

경험했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전후해 불거진 도덕성 문제는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이는 이번 정부가 포용국가를 위해 강조했던 ‘공평

1) 이 글은 김문길 등(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Ⅵ)』의 제2장과 제6장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인화성이 더욱 강력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불평등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며 소위 386세대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켰던 저작이 출간되면서²⁾ 자녀 세대의 진학과 취업에 386세대 부모의 부와 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행태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크게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기회의 불평등, 세대 간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자 결과로 볼 수 있다. 불평등은 개인 차원에서는 “그것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붙이는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하며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위험과 지위 불안이 커지고 위축과 복종, 종속 본능으로 이어지는 수치심을 유발”(Wilkinson & Pickett, 2019, pp. 107-108)하는 등 개인의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끌어낼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심리 악화는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행복이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통합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편법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공정 세계의 신념’이 무너질 경우 울분(embitterment)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합의 지표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 행복도, 공공에 대한 신뢰, 정

책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혐오, 자살 생각, 우울감을 높이는 병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명순, 2018). 그리고 이 같은 사회병리는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해식 외, 2017).

지난해에 공정성과 관련되는 사회통합 이슈로 뜨거웠었지만, 사회갈등 혹은 사회통합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는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집단을 비롯한 집단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갈등, 노동시장의 기회구조 악화에 따른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심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노인빈곤 문제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 등은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이에 이들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상황과 인식을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사회통합 정책 연구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태를 진단한 뒤 주요 요인들 간 상호관계와 사회통합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왔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 또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 글은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

2) 이철승(2019)의 ‘불평등의 세대’ 출간 이후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본적인 구조는 ‘세대’가 아니라 ‘계층(혹은 계급)’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Reeves. (2019), 조귀동(202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하여 사회통합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2절), 사회통합의 세 가지 요소로 꼽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을 각각 대표하는 주요 지표들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3절), 이들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토대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통합 증진의 향후 과제를 제시(4장)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 사회통합 상태 및 인식의 변화

가.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

1)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 일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도를 10점 척도로 설문하였다(‘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10점). 또한 2015년부터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감을 매년 같은 척도로 설문했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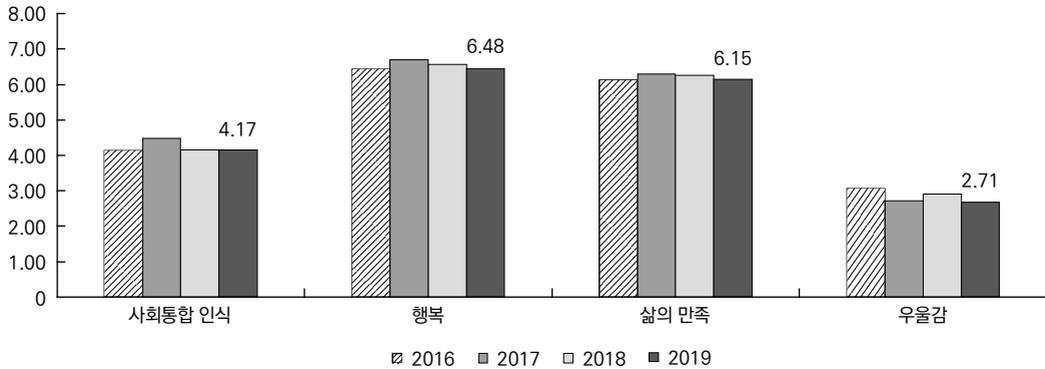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괄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7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진 이후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2019년의 경우

10점 만점에 4.17점으로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된다. 2016년 4.18점에서 2017년에는 4.50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사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루어졌으며(5월 31일~8월 31일), 이 기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70~80%대의 높은 수준이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4.17점으로 크게 하락한 후 2019년에도 같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지형과 연관 지어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 기간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시기와 겹친 점, 2019년 조사 기간(7월 1일~9월 15일)은 대통령 직무평가의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때와 겹치는 데다 정국 혼란의 발화 시점이 라 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 지명 시점(8월 9일)이 포함된 것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2019년의 경우는 노인층의 점수가 큰 폭으로 급속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김문길 등, 2019, p. 46)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행복감은 2016년 6.49점에서 2017년 6.73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8년 6.61점으로 낮아진 후 2019년에는 6.48점으로 하락세가 더 이어졌다. 삶의 만족도는 2016년 6.17점에서 앞선 두 가지 지표와 마찬가지로 2017년에 6.33점으로 상승한 후 2018년 6.28점, 2019년 6.15점으로 하락세가 이어

그림 1. 사회통합 관련 일반 인식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김문길 외(2019)에서 재인용.

졌다. 이들 지표의 등락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사회통합 인식 변화와 같은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울감은 2016년 3.09점에서 2017년 2.75점으로 낮아졌다가 2018년 2.93점으로 다시 높아진 후 2019년에 2.71점으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위의 세 가지 지표와는 다른 변화 추이를 보인다. 이들 네 가지 지표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관적·객관적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는 김문길 외(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사회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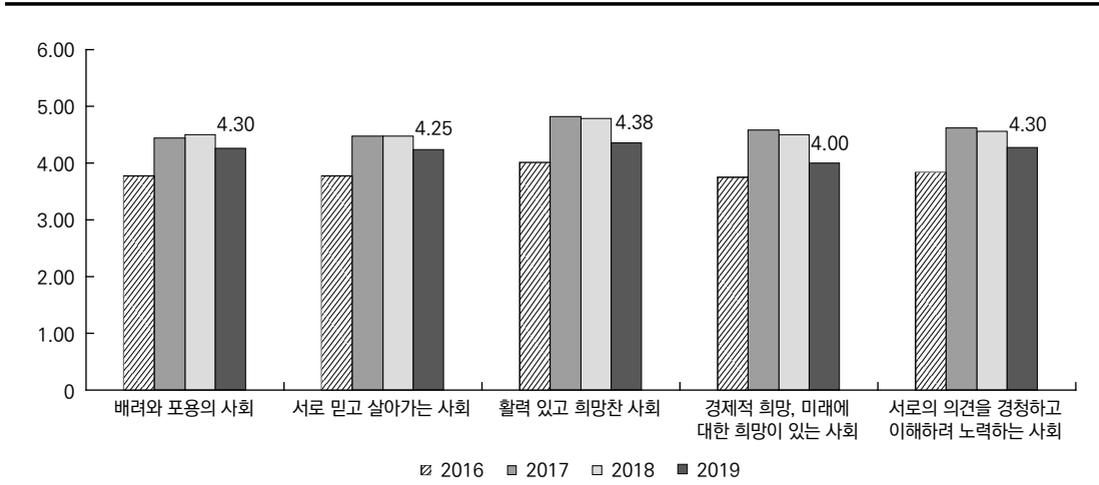
사회통합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다섯 가지 상(象)에 대한 인식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 문항들은 모두 위의 사회통합 인식 등과 마찬가지로 10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다섯 가지 모든 상에 대해 2019년은 2016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해 보면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에 4.38점을 부여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배려와 포용의 사회'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가 4.30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가 4.25점이고,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가 4.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같은 점수와 순위가 함의하

그림 2. 다섯 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김문길 외(2019)에서 재인용.

는 바를 간단히 짚어 보면 우리 국민들은 포용(↔ 갈등), 신뢰, 활력, 희망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5점 미만)하고 있다는 것, 상대적인 관점에서 활력 있는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포용, 신뢰, 경제적 희망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관적·객관적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는 김문길 외(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2016년 조사 이후 2019년에 다시 조사가 되어 3년 사이 국민의 인식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두 조사에서 척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³⁾ 각 조건의 점수를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두 조사의 척도를 10점 척도로 표준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척도의 기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2019년)와 '보통이다'(2016)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비교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조사의 순위를 비교하는 것으로 3년 사이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두 시기에서 1, 2순위는 모두 동일하다.

3) 2019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와 같이 4점 척도로 질문을 했고, 2016년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응답하도록 5점 척도로 질문을 했다.

1순위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2순위는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기회의 평등과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사회이동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 중 1순위로 꼽힌 조건은 기회의 평등, 사회이동성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공정성과도 관련이 있다. 즉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공정 세계의 신념'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2순위로 꼽힌 일자리 기회는 현재의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연결해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편법 없이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사회를 통합된 사회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3순위로 꼽혔던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2019년에는 11순위로 순위에서 크게 밀려났다. 두터운 중산층은 사회이동성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정해식 외, 2016, p. 42), 격차 또는 불평등 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포용성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두터운 중산층 대신 2019년에 3위로 꼽힌 것은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2016년에는 5순위로 꼽혔던 것이 2단계 상승한 것이다. 이는 부정 또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공정성의 이슈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1, 2순위가 기

회의 평등이나 공정성과 관련성이 높다면 3순위는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2019년에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꼽힌 조건들은 모두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상위 순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건은 5순위로 꼽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2016년 13순위에서 8계단 상승한 것인데, 이는 사회적 포용의 물질적 조건으로 분류된다. 분배와 관련되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 2016년에 각각 3순위와 12순위에서 2019년에 11순위와 14순위로 하락한 것과 견주어 볼 때 2019년에는 이들 분배와 관련되는 조건보다 경제성장과 관련되는 조건이 사회통합을 위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는 '문화적 다양성'(2016년, 2019년 19위), '양성 평등'(2016년 18위, 2019년 17위), '빈곤층 지원'(2016년 17위, 2019년 18위)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이 조건들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분류되는 것인데, 두 시기에 걸쳐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별, 연령별 분석 결과는 김문길 외(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2016년, 2019년 비교)

분류	항목	2016년 순위	2019년 순위
이동, 공정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1	1
이동, 기회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2	2
이동, 포용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3	11
자본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	4
자본, 공정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5	3
포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6	12
이동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7	7
자본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8	6
자본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9	8
갈등관리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10	9
갈등관리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11	10
포용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12	14
포용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13	5
갈등관리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4	15
자본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15	16
자본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16	13
포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17	18
포용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18	17
포용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19	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김문길 외(2019)에서 재인용.

3.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가. 사회통합 인식 결정 요인

1) 사회통합 인식

우리나라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의 영향을 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회통합의 세 구성 요소별로 사회통합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선택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⁴⁾ 그리고 설명 변수는 인식과 실태를 대표하는 변수군과 사회통합의 조건을 대표하는 변수군으로 구분해 각각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시기별 변화를

4)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별 해당 변수 중 Spearman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변수를 선택하였다. 인식과 실태를 나타내는 변수군에서는 '배려와 포용이 있는 사회'(0.5444. 사회적 포용), '믿고 살아가는 사회'(0.5412. 사회적 자본), '경제적 희망,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0.5891. 사회이동성)가 꼽혔고, 사회통합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군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0.0467. 사회적 포용),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0.0660. 사회적 자본),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0.0561. 사회이동성)이 꼽혔다.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19년 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 연령, 학력 수준, 소득 수준을 통제 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 요소로 선정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귀 모형을 구성하였다. 제약하 선형회귀 모형(constrained linear regression model) 또는 제한조건부 최소자승 추정법(restricted least squares)으로 불리는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이 추정 방법은 특정 회귀 계수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여타 회귀계수 추정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된다(이종원, 2007, pp. 460-461). 여기서는 여타 회귀계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특정 회귀계수들 간의 관계에 제약을 부여함으로써 추정된 회귀계수 값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 모형에서 가한 제약 조건은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의 합이 1이 되도록 한 것이다($\beta_1 + \beta_2 + \beta_3 = 1$).

먼저 제약 없는 회귀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에 사회통합 세 요소 중 사회통합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포용(‘배려와 포용이 있는 사회’), 사회적 자본(‘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사회이동성(‘경제적 희망,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세대별로는 청년층에 비해 중고령층이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보다 고졸 학력자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별로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 요인 중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요소는 사회이동성이고, 다음으로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통합 인식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자가 중졸 이하 학력자보다 사회통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고졸 학력자만큼은 아니지만 중졸 이하 저학력자보다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소득 수준은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시기의 제약 없는 회귀 모형 분석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16년에 사회적 포용이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 것과 달리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성, 기회의 평등과 같은 이슈들이 2019년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된 것과 관련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약하 회귀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두 시기 모두 제약 없는 회귀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구성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 순서는 동일한

표 2. 사회통합 구성 요소별 인식 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구분		2016년		2019년	
		제약 없는 회귀 모형	제약하 회귀 모형	제약 없는 회귀 모형	제약하 회귀 모형
사회적 포용	포용사회 인식	0.2595***	0.4217***	0.2352***	0.3543***
사회적 자본	믿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	0.1178***	0.2597***	0.0966***	0.2008***
사회이동성	경제적, 미래 희망 인식	0.1934***	0.3186***	0.3276***	0.4449***
성별(남성=0)	여성	0.1284*	0.0863	0.1142**	0.1237**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1411*	-0.2536***	-0.0302	0.0270
	노인	-0.0139	-0.2486*	-0.1315	-0.0211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2176*	0.2318*	-0.2028**	-0.1003
	대졸 이상	0.2424*	0.3346**	-0.1805*	-0.1020
로그총소득		0.1225**	0.0524**	0.0362	0.0155
상수		1.1494***	-	1.5375***	-
N		3,645	3,645	3,889	3,889
adjusted-R ²		0.2194		0.43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김문길 외 (2019)에서 재구성.

것으로 확인된다. 이 모형은 제약 조건을 통해 세 가지 변수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백분율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를 보면 2016년의 경우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사회적 포용 변수는 42.2%, 사회이동성은 31.9%, 사회적 자본은 26.0%의 영향력을 각각 가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이 비율 구성이 바뀌게 되는데, 사회통합 인식에 대해 사회이동성이 44.5%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포용이 35.4%, 사회적 자본이 20.1%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2) 사회통합 조건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변수군, 즉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사회적 포용),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사회적 자본),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사회이동성)을 이용하여 사회통합 인식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제약 없는 회귀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의 경우 사회적 포용을 대표하는 '경제적 풍요'는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유의할 만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적 풍요를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우리나라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노력에 맞는 대가를 얻는 사회를 사회통합 조건으로 인식하는

표 3. 사회통합 구성 요소별 조건 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구분		2016년		2019년	
		제약 없는 회귀 모형	제약하 회귀 모형	제약 없는 회귀 모형	제약하 회귀 모형
사회적 포용	경제적 풍요	0.1311***	0.4901***	-0.1210**	0.2625**
사회적 자본	서로 돕고 사는 것	-0.0303	0.2878***	-0.1072*	0.2436***
사회이동성	노력에 맞는 대가	-0.3416***	0.2220***	-0.0285	0.4939***
성별(남성=0)	여성	0.1917**	0.1227	0.1350*	0.2975***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0236	-0.0766	-0.0728	0.2854***
	노인	0.2277	0.0187	-0.1780	0.8352***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1924	0.2209*	-0.2720**	0.6104***
	대졸 이상	0.1420	0.1855	-0.1827*	0.6863***
로그총소득		0.1609**	-0.0229	0.1201	0.2916***
상수		4.0995***	-	5.0694***	-
N		3,889		3,889	3,889
adjusted-R ²		0.0255		0.43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김문길 외(2019)에서 재구성.

경향이 강할수록 우리나라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기 모형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연령과 학력은 유의할 만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에는 '경제적 풍요'가 유의할 만한 수준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가장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양(+)이었던 회귀계수의 부호가 바뀐 것이다. 다음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도 유의할 만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유의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은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모

형에서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바뀐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016년에 비해 '경제적 풍요'가 사회통합 인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앞 절의 사회통합 조건에서 '경제적 풍요'가 2016년 13순위에서 2019년 5순위로 크게 상승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별로는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가 우리나라 사회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층과 소득은 유의할 만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다.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의 경우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의 순이었던 영향력이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 사

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순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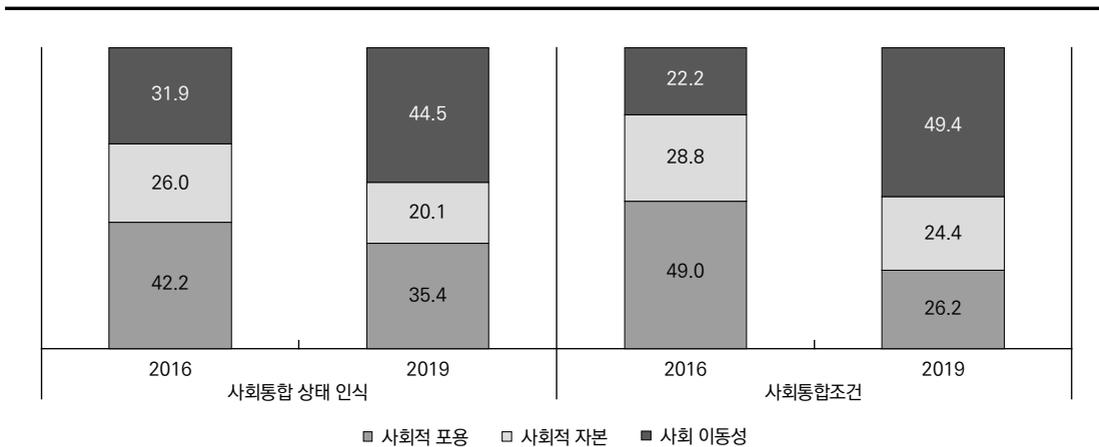
아래 그림은 두 시기의 제약하 회귀 모형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대표하는 각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 변수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이 42.2%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사회이동성이 31.9%, 사회적 자본이 26.0%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에는 사회적 포용이 35.4%로 2016년보다 영향력이 6.8%포인트 감소했고, 사회이동성은 44.5%로 2016년보다 영향력이 12.6%포인트 증가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20.1%로 2016년보다 영향력이 5.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는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되는 사회이동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경제적 풍요로 대표되는 사회적 포용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이 49.0%로 사회통합 인식에 절반에 가까운 영향력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26.2%로 그 영향력이 22.8%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사회이동성은 2016년 22.2%에서 2019년 49.4%로 27.2%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2016년 28.8%에서 2019년 24.4%로 4.4%포인트 감소하였다.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 변수가 투입된 모형과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사회적 포용에서 사회이동성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사회통합 구성 요소별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력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원자료; 김문길 외 (2019)에서 재구성.

4. 나가며: 요약 및 정책 함의

이상의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의 수준은 2017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매년 조금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달리 2019년에 조금 더 개선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들 변화는 대체로 정치적 사건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방식의 변화(시계열화와 거시 변수 결합 등) 등을 통해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사회적 포용(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사회적 자본(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사회이동성(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희망·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상에 대한 인식은 역시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18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19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특징을 보인다. 다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2016년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선 다른 지표들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로 구분해 전년 대비 하락폭을 살펴보면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나타나

2019년 들어 사회이동성과 관련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9년에 있었던 공정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의 중요도에서 2016년 대비 2019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2016년 13순위에서 2019년 5순위). 사회적 포용을 위한 물질적 조건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소득분배와 관련된 두 가지 조건의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즉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대한 조건이 더 중요시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분배보다 성장을 선호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이 변화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의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에 대한 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중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더 깊이 체감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관련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바를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5순위에서 3순위로 상승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 조건 변수보다 사회통합 인식 변수가 보다 유의하고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이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졌으나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이 지배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변화했다. 사회통합 조건 변수로 구성된 회귀 모형에서는 사회적 포용의 설명 변수로 ‘경제적 풍요’가 사용되었는데, 앞서 사회통합의 조건에서 2019년에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회귀 모형에서는 2019년에 그 영향력이 26.3%로 2016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특징적이다. 대신 사회이동성의 설명 변수로 ‘노력에 맞는 대가를 얻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조건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2019년 49.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선 결과로부터 제시한 정책적 함의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므로 재론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듯이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사회통합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길, 김미곤, 정해식, 곽윤경, 우선희, 이정윤. (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명순. (2018). 한국 사회와 올분. 서울대 행복 연구센터.
- 이종원. (2007). 계량경제학. 서울: 박영사.
-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귀동. (2020). 세습 중산층 사회-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서울: 생각의 힘.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Reeves, R. (2019). 20 VS 80의 사회-상위 20 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김승진, 역). 서울: 민음사. (원서출판 2017).
- Wilkinson, R. & K. Pickett. (2019). 불평등 트라우마 (이은경, 옮김). 서울: 생각이음. (원서출판 2018).